

재활용품 배출제 ‘엇박자’ 지사 ‘상시’ vs 부서 ‘신중’

위 지사, 선거때 요일 상관 없이 ‘상시 배출’ 공약
시범 운영 계획 무산… 위 “용역 결과 따라 진행”
환경부서 “배출제 전환 제외… 개선 방안 찾을 것”

위성곤 지사 공약인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 전환이 내부 이견으로 마지막 추진 동력까지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 요일별 배출제를 상시 배출로 전환해 시범 운영하는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연구 용역에서도 상시 배출제 전환은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위 지사는 1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민선 9기 도정이 상시 배출제 시범 운영과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최종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질문에 “선거 기간 (요일별 배출제) 폐지를 공약했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도정을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했던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상시 배출제 시범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등 지역도 없는 상황이다. 용역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최대한 공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위 지사는 선거 당시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면 폐지에 요일에 상관없이 모든 재활용품을 상시 분리 배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

나 당선 이후 도 환경부서가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100대 정책 과제에서 ‘폐지’라는 단어를 빼고 ‘재활용품 배출체계 혁신’으로 용어를 대체했다. 단 이행 계획에는 ‘상시 배출체계 마련’을 명시해 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동 지역에서 상시 배출제를 2~3개월 간 시범 운영해 효과와 주민 수용성을 검증하는 한편, 연구 용역도 함께 진행해 제도를 아예 폐지할지,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과 연구 용역으로 짜여진 이른바 투트랙 계획이다.

그러나 도는 상시 배출제에 참여하겠다는 등 지역이 없자 최근 의회에 출석해 시범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투트랙의 한 축이 사라졌지만 이날 위 지사는 남은 한 축인 용역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또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아직 철회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도 환경부서는 10분 만에 이를 뒤집는 듯한 방침을 공개했

다. 도 환경부서는 간담회 직후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연구 용역과 업지시서에 상시 배출제 전환 검토는 넣지 않는 것으로 내부 결정했다”며 “품목 단순화 등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업지시서는 발주기관이 용역 계약 수행 기관에게 해야 할 일의 범위와 요구 사항을 정리한 문서를 일컫는다. 이 관계자는 ‘과업지시서’에 상시 배출제 전환 검토를 넣지 않겠다는 건 결국 공약이 철회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단 이 관계자는 이번 부서 내부 방침이 아직 도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보고 단계에서 위 지사 지시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자체장 공약과 관련이 있는 부서 내부 방침이 지사에게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상시 배출제 전환을 둘러싼 위 지사와 환경·쓰레기 담당 공무원 간 이견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환경·쓰레기 담당 공무원 대다수는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운영이 무산된 것도 상시 배출제 전환 시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 부담 가중과 민원 발생 우려가 높다는 등 지역 담당자들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상민기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막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6일 7일간 열전을 마무렸다. 164개의 메달을 획득해 장애인체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제주를 이날 폐회식에서 다음 체전 개최지인 경기도에 대회를 전달했다. >> 관련기사 7면. 강희만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대대적 방제 나선다 행정시, 115억 투입 14차 방제작업 9월 본격 시작 ‘2029년 제주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전환’ 목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가 매개종 활동 및 감염에 대비해 이달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나선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14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추자도 등을 제외한 제주시 전역에서 이뤄진다.

관련 사업비는 75억원 (국비 40, 도비 35)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고사목 5만 그루 제거, 예방나무주사 500ha, 드론방제 150ha 등이다. 특히 드론 영상을 활용해 누락목이나 집단 고사목 발생지 조사와 방제 취약지역 및 벌채산물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제주시는 오는 10월 본보가 올해 초에 지적했던 환경면 일

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4000여 그루를 전량 제거한다. 이어 내년 5월까지 곳곳에 산재한 고사목 5만 그루 제거와 방제산물 전량 처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좌읍, 한경면, 선단지 등 500ha의 소나무림에 대한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구좌읍과 한림읍을 중심으로 150ha 소나무림에 대한 드론 방제를 실시한다.

서귀포시도 40억원을 투입해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귀포지역 전체 소나무류 고사목 발생량은 연간 3만 본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선충병에 의한 고사목 비율은 2022년 70%에서 올해 40%로 감소

했다. 반면 기후변화로 솔껍질깍지벌레와 솔나방 등 일반 병해충 피해 비율은 전체 고사목의 약 60%까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서귀포시는 재선충병 방제는 물론 일반 병해충에 대한 예방과 적기 방제를 병행하는 등 소나무류 고사 원인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연내 14억원을 우선 투입해 대정읍·안덕면과 남원읍 물영아리 인근 등 재선충병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헬기·드론·지상 예찰을 병행해 피해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산림청의 ‘2029년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전환’ 목표에 발맞춰 재선충병 피해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한편, 2028년 이후 전체 소나무류 고사목을 연간 2만본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금기자

이재명 대통령 내일 기자회견… 국정현안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날 정부가 올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 제주를 비롯한 지역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

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갖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

경찰, 100억대 사기조직 검거… 4면 /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10월 준폐 판가름… 5면

국인과 함께하는
농심천심

보낸사람, 농민

— 웃는 이유는 달라도 이어지는 마음은 같습니다 —

농심천심

농민의 마음에서
국민의 웃음으로

농심천심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활력을 더하는 참여형 국민운동입니다.

제4회 제주바다그리기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받는사람, 국민

농협중앙회 농협상호금융 농협네트웍스 농협자산관리회사 농협정보시스템 농협파트너스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남해화학 농협케미컬 NH농우바이오 농협에코아그로 농협양곡 농협홍삼 농협식품 NH농협무역 농협물류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농협티엠알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선물 NH헤지자산운용

제주농협